

2016 주요산업 전망 및 이슈

I. 2016년 주요산업 전망	1
II. <이슈 1> 저유가가 주요산업에 미치는 영향 · 11	
III. <이슈 2> 주력산업 구조조정의 이슈	21
1. 해운산업.....	21
2. 조선산업.....	24
3. 철강산업.....	26
4. 해외건설.....	30

확인 : 팀 장 이재우 (3779-6685)
jaewoolee@koreaexim.go.kr

작성 : 선임연구원 양종서(051-922-8883)
flydon@koreaexim.go.kr
선임연구원 강정화 (3779-5327)
nicekang@koreaexim.go.kr
선임연구원 성동원 (3779-6680)
dwsung@koreaexim.go.kr
선임연구원 이미혜 (3779-6656)
mihyelee@koreaexim.go.kr

< 요약 >

I. 2016년 주요산업 전망

□ (조선) 저유가의 영향으로 에코십수요가 위축되며 수주 감소 전망

- (전망) 2016년 수주액은 전년대비 약 25% 감소
 - 한국 수주액 : ('14) 329억달러 → ('15) 226억달러 → ('16) 170억달러
- (이슈) 신조선 시장은 저유가 기조가 유지되면서 해양플랜트 발주가 사실상 사라졌고 에코십 수요마저 위축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해외건설) 저유가의 부정적인 영향이 지속되는 한해

- (전망) 2016년 해외건설 수주액은 중동 수주 부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 감소할 전망
 - 해외건설 수주액: ('15) 461억달러 → ('16) 450억달러
- (이슈) 과거와 같은 저가수주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나, 중동 지역 수주 공백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

□ (철강) 생산 및 수출 모두 부진한 한해가 될 전망

- (전망) 세계 철강수요 감소와 공급과잉으로 인한 철강가격 약세로 2016년 수출은 전년대비 12% 감소할 전망
 - 철강 수출액: ('15) 302억달러 → ('16) 265억달러
- (이슈) 중국 업체들의 공급과잉 물량 해소를 위한 수출확대는 국내 기업들의 수출 감소 및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

□ (일반기계) 선진국 시장 회복으로 수출 소폭 증가

- (전망) 2016년 일반기계 수출은 전년대비 3.5% 증가할 전망
 - 일반기계 수출액: ('15) 468억달러 → ('16) 485억달러
- (이슈) 해외건설 부진으로 건설기계 수출부진이 악재 요인

□ (ICT) 세계시장이 전년대비 0.6% 성장하면서 수출은 소폭 증가

- 세계 ICT시장 성장률: ('14) 1.5% → ('15) △5.8% → ('16) 0.6%
- (전망) 중국과의 경쟁이 심화되나 스마트폰의 선진, 반도체의 기술 우위 유지 등으로 수출액은 전년대비 약 2.3% 증가
 - ICT수출액: ('15) 1,729억달러 → ('16) 1,769억달러
- (이슈) 스마트폰 등 기기 수요 부진, 중국기업들의 해외진출 가속화 및 메모리반도체 시장 진출은 위협요인

□ (석유화학) 선진국 수요 회복에도 불구하고, 유가하락 전망으로 수출액 하락

- (전망) 2016년 선진국 경기 회복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전년대비 배럴당 10달러 이상 하락한 38~40달러 수준으로 전망되는바, 수출액이 전년대비 7% 정도 하락할 전망
 - 석유화학제품 수출액: ('15) 378억달러 → ('16) 350억달러
- (이슈) 저유가 지속에 따른 원가경쟁력 개선, 타이트한 제품 수급 밸런스 등이 석유화학기업 수익성에는 긍정적인 것으로 기대
 - 단, 공급과잉이 심한 제품군(합성원료, 프로필렌) 수익성 부진은 지속 전망

□ (콘텐츠) 한중 FTA 타결로 중국 중심으로 수출 증가

- (전망) 2016년 콘텐츠 수출은 전년대비 7% 증가할 전망
 - 콘텐츠수출액: ('15) 57.0억달러 → ('16) 61.0억달러
- (이슈) 수출이 게임부문(56.4%)에 편중되어 있으며 아시아 개도국에서 지적재산권 침해가 지속되는 점은 위험 요인



□ (소프트웨어) 해외진출 추진 기업의 증가와 기존 소프트웨어 고도화로 사업 기회가 증가하면서 수출 증가

- (전망) 2016년 소프트웨어 수출은 전년대비 8% 증가
 - 소프트웨어수출액: ('15) 60.4억달러 → ('16) 65.2억달러
- (이슈) 소프트웨어를 현지화(언어 등)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겪으며 비용이 증가하는 점은 수출 확대의 걸림돌로 작용

II. <이슈 1> 저유가가 주요 산업에 미치는 영향

- 두바이유 평균가격이 '14년 배럴당 96.56달러에서 '15년 50.69달러로 하락한 이후 '16년에도 유가하락 지속
 - 금번 유가하락은 공급과잉이 주도하고 있으나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수요둔화 요인도 존재
 - 원유 공급과잉과 수요둔화가 당분간 지속되어, 저유가 기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 저유가는 원유도입비용 감소에 따른 무역수지 개선, 기업의 생산비용 감소 등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
 - 그러나 OPEC, 러시아, 브라질 등 산유국들이 저유가 지속으로 재정난이 심화되고 있어 이들 신흥국 수출에 부정적 영향이 확대될 가능성도 상존
- 저유가가 주요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상이한바, 정유 및 석유화학 산업은 저유가 수혜를 누리고 있는 반면 조선, 해외플랜트 산업의 타격이 큰 것으로 나타남.

< 저유가가 주요 산업에 미치는 영향 >

영향	구분	주요 내용
긍정적 	정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유가에 따른 석유제품 가격 동반 하락으로 2015년 수출액이 전년대비 36.9% 급감 그러나 저유가로 인한 실질소득 증가 효과 등으로 유럽 등지에서 견조한 수요를 보이며 높은 수준의 제품 마진 시현
	석유화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유가로 2015년 수출액은 전년대비 21.6% 감소 원재료인 나프타 가격이 하향안정화되고, 수급이 타이트해지면서 석유화학기업들의 수익성은 대폭 개선
부정적 	조선·해양 플랜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유가로 해양플랜트 시장이 붕괴되고, 에코십 투자가 위축되는 등 2015년 선박 수주액이 전년대비 31.5% 급감
	해외플랜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체 수주액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중동지역 발주가 대폭 감소하며 2015년 수주액이 전년대비 48.8% 급감

- 저유가에 따른 산업별 위기 및 기회요인을 지속적으로 파악하는 한편,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대응이 필요
 - 정유, 석유화학, 조선 등은 공통적으로 글로벌 공급과잉이 심화되고 있는바 국내기업들의 차별적인 경쟁력 확보 절실
 - 해외 플랜트 산업은 중동 외 지역으로의 수주지역 다변화와 함께 디폴트 발생이 우려되는 신흥 산유국에서의 선별적 수주와 리스크 관리 강화 필요

III. <이슈 2> 주력산업 구조조정의 이슈

1. 해운산업

- ☐ 2000년대 해운 및 조선업 호황기를 거치며 선박량 과잉이 발생하였고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됨.
 - 해운업의 선박량 과잉은 선종에 따라 15~23% 수준으로 추정됨.
- ☐ 해운업은 전 세계적인 자국 해운사 지원으로 선박이 유지되고 있어 시장이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음.
- ☐ 우리나라에서는 양대 컨테이너선사의 정리가 가장 심각한 구조조정 사안으로 남아 있으며 다음의 문제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여야 할 것임.
 - 정부와 금융권의 한정된 재정 내에서 가장 효율적인 초대형 고효율 선박의 지원책
 - 컨테이너선 시장의 해운동맹 구도의 변화시 국적선사들이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경쟁력 강화 방안

2. 조선산업

- ☐ 2000년대 호황기를 거치며 조선업 역시 과잉생산 설비 발생
 - 조선업의 설비과잉은 현재와 같은 침체상황에서 약 40% 이상으로 추정되며 과잉률은 시황 호전에 따라 축소될 수 있음.
- ☐ 전 세계 조선업 구조조정은 가장 중요한 중국의 성과가 크게 드러나고 있지 않아 설비과잉 해소에 어려움이 있음.
 - 중국정부는 고용문제로 인한 적극성 부족과 지방정부의 반발 등으로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가 없는 것으로 보임.
- ☐ 국내 조선산업 구조조정은 주로 중형 조선소의 문제로 압축되고 있음.
 - 중형조선소들의 경우 과거 28개에서 7개사 정도만이 남아있어 양적 조정은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됨.
- ☐ 아직까지는 조선산업은 최고의 경쟁력을 보유한 만큼 무조건적인 축소보다는 특화전략으로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이 바람직 할 것임.
 - 특히, 중대형 조선소들의 주력 선형이 겹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조정을 통하여 과당경쟁 방지와 경쟁력 강화를 꾀할 필요가 있음.

3. 철강산업

- 수요는 정체된 반면, 아시아 지역 중심으로 철강산업 투자가 확대되면서 철강 공급은 과잉인 상황
 - '15년 기준 세계 조강생산용량은 21억 톤으로 추정되며, 수요대비 약 6억 톤이 공급과잉
- 한·중·일 철강산업은 올해 구조조정을 통해 공급량 조절에 나설 예정
 - 중국 정부는 향후 신규 건설 억제 및 1억 ~ 1.5억 톤 설비 감축 등 철강산업에 대한 강한 구조조정을 시행할 계획
 - 일본은 아시아 지역 공급과잉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중복사업 인수 합병과 설비 합리화를 위한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음.
- 현재의 어려운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선 원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산업 집중도 증대와 중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적극적인 대체 노력이 필요

4. 해외건설

- 2016년 해외건설 수주액은 전년대비 2% 감소한 450억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 2016년 평균 유가는 전년대비 24%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외건설 수주 부진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
- 국내 건설산업은 새로운 성장을 위한 성장동력 마련이 절실한 상황
 - 우리나라 해외건설 수주가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향후 중국 및 인도의 추격이 거세질 전망
- 국내 해외건설 경쟁력 확대를 위해선 기술고도화와 지역다변화가 필요
 - 기술경쟁력 확보 및 수익 모델 확대 등의 기술고도화가 필요하며, 해외건설 수주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중동지역 비중을 낮추고 20%에 불과한 아시아시장 개척 노력이 필요

I. 2016년 주요산업 전망

1. 조선

□ 2015년 조선 수주는 크게 감소한 반면 수출은 소폭 증가

- 2015년 신조선 수주량은 전년대비 17.4% 감소한 1,039만CGT를 기록
 - 저유가로 해양플랜트 수주가 사실상 전무한 가운데 에코십 수요마저 위축되며 전년대비 큰 폭의 감소를 나타냄.
 - 수주액 기준으로는 31.5% 감소한 226억달러에 그침.
- 해양플랜트를 포함한 선박수출은 전년대비 0.6% 증가한 401억달러로 집계됨.
 - 2013~2014년의 양호한 수주로 풍부한 수주잔량을 기반으로 건조량이 5.6% 증가하면서 수출은 소폭 증가
 - 다만, 해양플랜트의 인도거부 등 저유가에 의한 시황악화로 인하여 기대 하였던 수출액에는 미치지 못하였음.

□ 2016년도 신조선 수주는 큰 폭의 감소가 예상되며 수출 역시 감소 전망

- 저유가 지속에 따라 극심한 해양플랜트 수주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에코십 투자도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
- 수주량 기준으로 23%, 수주액 기준으로 25% 감소 전망
- 수출은 풍부한 수주잔량에도 불구하고 해운시황 악화에 따라 선주들의 인도거부 또는 연기 요구 등으로 전년대비 약 5% 내외 감소 전망

< 조선 수주 및 수출 전망 >

(단위: 억달러, %)

구분	2013	2014	2015	2016
수주액	465	329	226	170
(증감률)	(52.6)	(△29.1)	(△31.5)	(△24.7)
수출액	371	399	401	380
(증감률)	(△6.6)	(7.3)	(0.6)	(△5.3)

자료: Clarkson, 산업통상자원부, 2016년 전망은 한국수출입은행

2. 해외건설

□ 2015년 해외건설 수주액은 전년대비 30% 감소한 461억달러

- 2015년 플랜트 수주액은 265억달러 수준으로 전년대비 48.7% 감소
 - 2015년 플랜트 수주액은 5년 내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가장 큰 이유는 저유가 상황에 따른 중동 수주 부진때문
 - 플랜트 모든 공종에 걸쳐 수주 감소가 나타남.

* 플랜트 수주 추이(억달러) : '10(573)→'11(433)→'12(395)→'13(396)→ '14(517)→ '15(265)

- 2015년 토목 수주액은 85억달러로 전년대비 50% 증가하여 큰 폭의 증가세를 기록
- 2015년 건축 수주액은 전년대비 44% 증가한 71억달러

□ 전통적인 주력 시장인 중동 수주 부진이 해외건설 수주 감소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침.

- 해외건설 수주의 50% 이상 차지하는 중동 수주액이 '15년 전년대비 47.2% 감소한 165억달러를 기록
 - 유가와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중동 발주는 2014년 말부터 불어닥친 저유가 상황으로 인해 큰 폭으로 감소함.
- 2015년 아시아 지역 수주액은 전년대비 23.9% 증가한 197억달러

□ 2016년도 해외건설 수주액은 금년대비 약 2% 감소한 450억달러 전망

- 2015년 수주 부진의 가장 큰 원인이었던 중동 수주가 저유가 상황 지속으로 인해 개선되기 어려운 상황
 - 2016년 유가전망은 배럴당 30~40달러대로 전망됨에 따라 중동 지역 재정 악화로 인해 플랜트 분야 투자가 위축될 전망
- 아시아 지역 인프라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 올해도 아시아 지역 수주는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신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중남미 및 북아프리카 지역 수주도 신흥국 경제성장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주액이 감소할 전망

< 해외건설 수주 추이 및 전망 >

(단위: 억달러, %)

구분	2013	2014	2015	2016
수주액	652	660	461	450
(증감률)	(0)	(1.2)	(△30.1)	(△2.4)

자료: 해외건설협회, 2016년 전망은 한국수출입은행

3. 철강

□ 2015년 철강 수출액은 302억달러로 전년대비 15% 감소

- 중국발 공급과잉에 따른 경쟁심화로 아시아 시장 수출이 부진
 - 중국의 철강 공급과잉 물량이 2014년 4억 톤에 달하며, 2015년에는 4.17억 톤으로 증가
 - 중국의 공급과잉 물량이 아시아 시장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으며, 이로 인한 수출경쟁이 한층 치열해진 상황
- 원자재 가격하락에 따른 수출단가 하락도 수출 감소의 주원인
 - 2014년 평균 철강 수출단가는 1,031달러 였으나, 2015년 수출단가는 884달러로 14% 감소

□ 2016년 철강 수출액은 전년대비 12% 감소한 265억달러 전망

- 전방산업의 영향력이 큰 철강산업의 특성상 세계 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 부진이 이어질 전망
- 중국의 공급과잉이 심각한 상황으로 2016년에도 아시아 시장을 두고 중국의 수출확대 정책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아시아 수출시장의 경쟁이 치열할 전망

< 철강 수출 추이 및 전망 >

(단위: 억달러, %)

구분	2013	2014	2015	2016
수출액	325	355	302	265
(증감률)	(△11.9)	(9.2)	(△15)	(△12)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2016년 전망은 한국수출입은행

4. 일반기계

□ 2015년 일반기계 수출은 소폭의 감소추세를 보임.

- 2015년 일반기계 수출액은 전년대비 3.4% 감소한 468억달러에 그침.
- 품목별로는 국내 일반기계 수출의 최대 주력품목인 건설광산기계가 해외 건설업 부진의 영향으로 약 24%¹⁾ 감소하여 수출감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으며 주력 품목 중 운반하역기계와 금형이 각각 2.4%와 8.8% 감소
 - 주력 품목 중 내연기관 5.7%, 냉동공조기계 3.1%, 공작기계 6.4%, 펌프압축기 3.0%, 반도체기계 17.8% 등 상당수의 품목들이 수출증가세를 기록하여 건설 기계의 부진이 전반적으로 매우 큰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됨.
- 지역별로는 미국 7.6% 증가, EU 5.6% 증가 등 선진국 시장에 대한 수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BRICs 13.2%, 중남미 10.7% 감소 등 개도국 시장에 대한 수출이 현저히 감소한 양상을 보임.

□ 2016년도 일반기계 수출은 선진국 시장의 회복 지속으로 약 4% 내외의 증가 전망

- 건설광산기계의 수출 부진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나 그 이외의 품목들은 2015년에도 비교적 양호한 흐름을 보였고, 2016년에도 선진국 시장의 회복 지속으로 견조한 증가세가 예상됨.
- 미국, 유럽 등 선진국 시장의 수출은 2015년 대비 증가세가 예상되나 중국, 중남미, 아시아 개발도상국에 대한 수출은 다소 부진할 가능성이 높아 수출 증가율은 4% 내외로 제한적일 전망

< 일반기계 수출 전망 >

(단위: 억달러, %)

구분	2013	2014	2015	2016
수출액	464	484	468	485
(증감률)	(△3.1)	(4.3)	(△3.4)	(3.7)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2016년 전망은 한국수출입은행

1) 지역별, 품목별 수출 증감률은 2015년 11월 누적 기준

5. ICT

□ 2015년 ICT 수출은 전년대비 1.9% 감소한 1,728.9억달러

- 반도체 수출은 상반기에는 메모리반도체를 중심으로 증가하였으나 하반기에는 단가하락이 심화되면서 전년대비 0.4% 증가한 629.2억달러
- 디스플레이 패널 수출은 TV와 컴퓨터 수요 둔화, 중국 등 후발주자의 공격적 생산으로 전년 대비 6.8% 감소한 325.1억달러
- 휴대폰 수출은 프리미엄 시장에서 애플의 지배력 지속, 중국 기업 등 후발기업의 공세 등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9.8% 증가한 290.4억달러
 - 스마트폰 수출은 경쟁심화로 전년대비 16.2% 감소한 103.1억달러
 - 부분품 수출은 해외생산 확대로 전년대비 33.6% 증가한 186.6억달러를 달성하였으며 2014년부터 완제품 수출을 상회

□ 2016년 ICT 수출은 전년대비 2.3% 증가한 1,769억달러

- 반도체 수출은 메모리반도체 가격 하락이 지속되나 기술우위가 유지되면서 소폭 증가할 전망
- 디스플레이 패널 수출은 국내기업의 해외 생산 확대, 중국기업과의 경쟁 심화로 하락세를 지속
- 휴대폰 수출은 가격경쟁심화에 따라 해외생산이 증가하면서 부분품이 수출을 견인

< ICT 수출 추이 및 전망 >

(단위: 억달러, %)

구분	2013	2014	2015	2016
수출	1,694	1,739	1,729	1,769
(증감률)	(9.1)	(2.6)	(△1.9)	(2.3)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2016년 전망은 한국수출입은행

6. 석유화학

□ 우리나라 석유화학산업은 對중국 의존도가 절대적인 가운데 최근 몇 년간 중국시장의 경쟁심화, 저유가 여파로 수출 실적 부진

- 우리나라 석유화학산업은 수출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며, 특히 중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전체 수출의 50%에 근접)가 매우 높은 구조
-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에 따른 수요부진과 자급률 상승, 중동산 제품과의 경쟁 격화 등 대외적 악재요인으로 수출실적 악화
 - 석유화학제품 수출액은 2013년 484억달러로 역대 최고치 기록 후 하락세
- 2015년에는 수출물량 확대에도 불구하고 저유가에 따른 석유화학 제품 수출 단가 하락으로 전년동기대비 수출액이 21% 이상 급감한 378억달러 기록

* 수출물량(만톤,%): ('14) 1,564 → ('15 e) 1,689(2.4)

** 수출단가(\$/톤,%): ('14) 1,534 → ('15 e) 1,084(△26.2)

□ 최근 수년간 국내기업의 매출 및 영업이익이 감소했으나 2015년은 저유가 영향으로 매출은 감소했으나 수익성 대폭 개선

- 2015년은 저유가에 따른 제품가격 동반하락으로 매출액이 전년대비 감소했으나 나프타 가격 하향 안정화에 따른 원가절감으로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
- 주로 기초유분·중간원료, 합성수지를 생산하는 NCC 업체들의 수익성이 반등하였고, 중국 자급률이 크게 상승한 합성원료 등을 생산하는 기업의 수익성 부진은 지속

□ 2016년은 선진국 수요 회복에도 불구하고, 저유가에 따른 석유화학제품 수출단가 하락으로 수출액이 전년대비 7.4% 감소한 350억달러 전망

- 중국 경제 성장 둔화가 지속되겠으나 미국, 유로존 등 선진국 경기 회복 조짐이 석유화학제품 수요증가에 긍정적으로 작용
- 그러나 2016년도 유가가 전년대비 10달러 이상 낮은 38~40달러 수준으로 전망되는 바, 석유화학제품 수출단가 하락으로 수출액 감소 전망
- 수출실적 부진에도 불구하고 나프타 가격 하향 안정화에 따른 원가경쟁력 개선으로 국내 NCC 업체 중심의 수익성 호조세가 지속될 전망

- 원재료인 나프타의 경우 수입선이 미국, 러시아 등으로 다변화*되고, 국내 자급률이 상승**하는 등 수급상황이 완화되는 한편, 저유가 영향으로 가격 하향 안정화 지속 가능성 높음.

* 미국산 나프타 물량 비중이 2013년 1%미만에서 2014년 5%(125만 톤)로 급증, 러시아산 물량 비중은 2014년 18%(442만 톤)에 달함.

** 한국 나프타 평균 자급률: ('13) 55% → ('15) 60%

- 단, 프로필렌, 합섬원료 등 공급과잉이 심한 제품군은 실적 부진이 이어질 전망
 - 프로필렌 계열은 중국 석탄화학기반의 On-purpose 신규설비(PDH 등) 가동 등 공급과잉 지속
 - 중국 자급률이 급격히 상승한 합섬원료는 2010년 이후 수출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합섬원료 중 하나인 TPA(테레프탈산)²⁾의 중국 자급률은 100%에 육박, 대중국 수출경쟁력이 사실상 상실

< 석유화학제품 수출 추이 및 전망 >

(단위: 억달러, %)

구분	2013	2014	2015	2016
수출액	484	482	378	350
(증감률)	(5.4)	(△0.3)	(△21.6)	(△7.4)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2016년 전망은 한국수출입은행

7. 서비스

가. 콘텐츠

□ 2015년 콘텐츠 수출액은 57.0억달러로 지난 4년간 연평균 7.3% 성장

- 상반기에는 메르스 사태 등의 여파로 인해 콘텐츠 수출이 주춤하였으나 3분기부터 회복세를 보임.
- 주력 수출 분야('14년 기준)는 게임으로 수출액의 56.4%를 차지하며 다음으로 캐릭터 9.3%, 지식정보 9.1%, 방송 및 음악 각 6.4% 순
- 수출 지역은 아시아권을 넘어 북미, 유럽, 남미 등으로 다변화되고 있음.

2) 폴리에스터섬유와 페트(PET), 필름 등의 주원료로 사용됨.

< 국내 콘텐츠산업 수출액 >

(단위: 억달러, %)

구분	2012	2013	2014		2015
				비중	
출판	2.5	2.9	2.5	4.7	n.a
만화	0.2	0.2	0.3	0.5	n.a
음악	2.4	2.8	3.4	6.4	n.a
게임	26.4	27.2	29.7	56.4	n.a
영화	0.2	0.4	0.3	0.5	n.a
애니메이션	1.1	1.1	1.2	2.2	n.a
방송	2.3	3.1	3.4	6.4	n.a
광고	1.0	1.0	0.8	1.4	n.a
캐릭터	4.2	4.5	4.9	9.3	n.a
지식정보	4.4	4.6	4.8	9.1	n.a
콘텐츠솔루션	1.5	1.6	1.7	3.2	n.a
합계	46.1	49.2	52.7	100.0	57.0

자료: 한국콘텐츠진흥원

□ 2016년 수출액은 전년대비 7% 증가한 61.0억달러로 예상

- 2015년 11월 한중 FTA가 타결되면서 수출은 중국 중심으로 증가
 - 중국 시장 규모는 한국의 2.1배 수준으로 2018년까지 연평균 11% 성장
 - 한중 FTA로 지적재산권 기간 연장(20년→50년), 방송사업자의 배타적 권리 인정, 저작권 강화로 한류 콘텐츠 보호 기반이 마련됨.

< 콘텐츠 수출 추이 및 전망 >

(단위: 억달러, %)

구분	2013	2014	2015	2016
수출	49.2	52.7	57.0	61.0
(증감률)	(6.8)	(7.1)	(8.1)	(7.0)

자료: 콘텐츠산업진흥원, 2016년 전망은 한국수출입은행

- 수출이 게임부문(56.4%)에 편중되어 있으며 아시아 개도국에서 지적 재산권 침해가 지속되는 점은 위험 요인

나. 소프트웨어

□ 2015년 수출액은 전년대비 13.3% 증가한 60.4억달러

- 패키지 SW 수출은 전년대비 4.8% 증가한 27.7억달러를 달성
- IT서비스 수출은 전년대비 21.7% 증가한 32.7억달러를 달성
- 수출대상국은 일본, 동남아 등 일부 국가에서 중국, 중동 등으로 확대되고 있음.

□ 2016년 수출액은 전년대비 8% 증가한 65.2억달러로 예상

- 국내 시장 규모가 세계시장 규모의 1% 수준으로 작아 해외 진출을 추진하는 기업들이 증가하는 추세
 - 국내 패키지 SW기업수는 총 2,454개이며 이중 수출실적을 보유한 기업은 17%이나 해외진출을 추진하는 기업이 증가하는 추세
- 모바일, 클라우드 서비스³⁾ 등 신규 플랫폼이 기존 소프트웨어의 고도화를 유도하여 관련 사업이 유망
 - 클라우드 서비스는 인프라(스토리지 등)를 제공하는 IaaS(Infrastructure as a Service), 통합된 플랫폼을 클라우드 인프라를 통해 제공하는 PaaS(Platform as a Service) 단계를 지나 SaaS(Software as a Service)로 확대되고 있음.

< SW 수출 추이 및 전망 >

(단위: 억달러, %)







구분	2013	2014	2015	2016
수출	41.9	53.3	60.4	65.2
(증감률)	(70.0)	(26.9)	(13.3)	(8.0)




자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2016년 전망은 한국수출입은행

- 소프트웨어를 현지화(언어 등)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겪으며 비용이 증가하는 점은 수출 확대의 걸림돌로 작용

3) 인터넷으로 연결된 데이터센터에 소프트웨어와 콘텐츠를 저장해두고 필요시 사용하는 서비스

< 주요 산업별 업황 전망 및 주요 요인 >

구 분	업황전망	주요 요인
조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유가에 의한 해양플랜트 및 에코십 수요 침체 • 해운 시장 침체
해외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유가에 의한 중동시장 부진 • 다만, 저가수주는 감소 추세
철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 세계 철강경기 침체 • 중국발 공급과잉에 의한 가격 하락
일반 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진국 시장의 회복과 신흥국 시장의 침체 • 건설기계의 부진과 다른 주력품목의 선전 예상
I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쟁심화와 해외생산 증가로 수출 증가율 둔화
석유화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유가에 의한 제품가격 하락으로 수출 감소 • 선진국 시장 회복 및 가격의 완만한 상승 예상

 : 좋음,  : 보통,  : 나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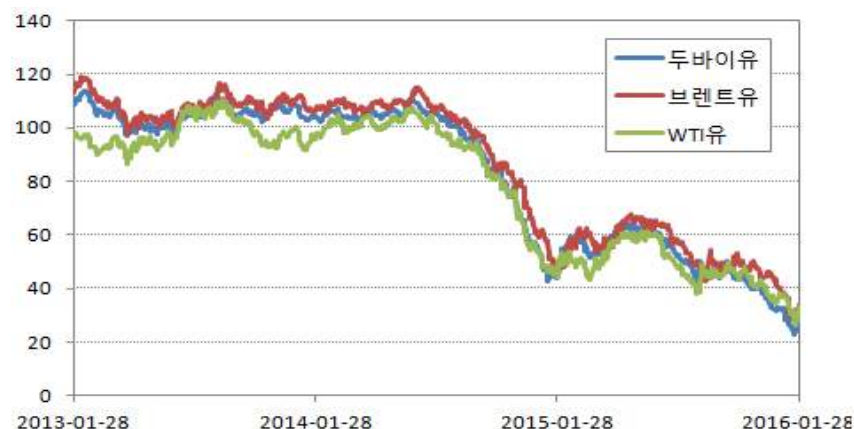
II. <이슈 1> 저유가가 주요산업에 미치는 영향

1. 유가동향 및 전망

- 두바이유 평균가격이 '14년 배럴당 96.56달러에서 '15년 50.69달러로 하락한 이후 '16년에도 유가하락 지속
 - 국제유가는 미국발 공급과잉 이슈로 2014년 하반기부터 급락하기 시작하였으며, 원유재고 증가, 달러화 강세, OPEC 감산합의 실패 등으로 2016년 1월말 현재까지 하락세 지속
 - 1월 들어 이란 경제제재 해제에 따른 공급과잉 심리가 가세되며 유가 하락세가 가속화하여 배럴당 20달러대로 하락
- 금번 유가하락은 공급과잉이 주도하고 있으나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수요둔화 요인도 존재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침체와 2010년 이후 미국 셰일오일 생산 확대에도 불구하고 2010~2014년 상반기까지 배럴당 100달러대의 고유가가 유지되었는데 이는 중동 산유국의 지정학적 불안에 기인
 - 2014년 초 중동 지정학적 불안이 완화되면서 공급과잉 및 수요둔화의 영향에 따른 유가하락이 본격적으로 나타남.
 - 최근 저유가에 따른 실질소득 증가 효과로 일부 선진국에서 경기개선이 나타나고 있으나 근본적으로 글로벌 경제가 저성장 기조로 전환되고 있음.
 - 중국 경제 성장세 둔화와 함께 러시아, 브라질 등 신흥 산유국이 유가 등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경제에 적신호가 켜지는 등 글로벌 수요둔화 이슈가 확대될 전망

< 최근 3년간 국제유가 추이 >

(단위: \$/bb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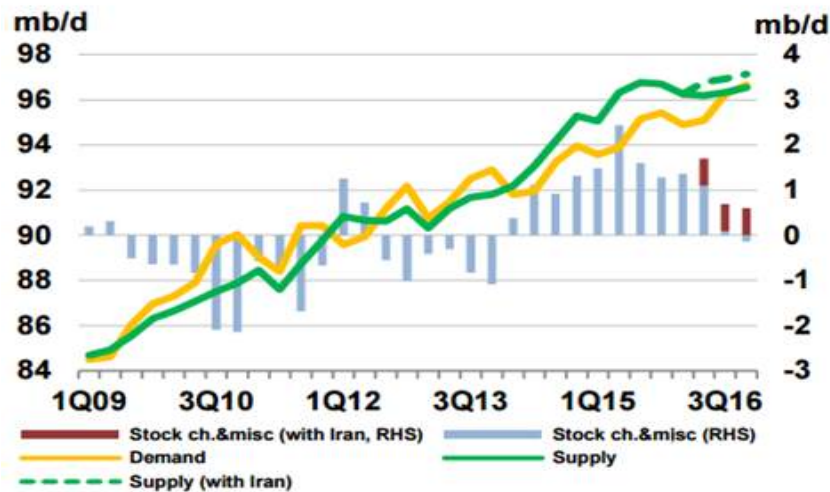
자료: Koreapds

□ 공급과잉 및 수요둔화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바, 저유가 기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 IEA는 2016년까지 원유시장의 공급과잉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

- 이란 재고까지 시장에 유입될 경우, 2017년까지도 재고 소진이 이어질 수 있어 단기적으로 1~2년 내에 공급과잉 현상이 해소되기가 어려울 것

< 세계 석유수급과 재고 추이 및 전망 >



자료: IEA(2015.10월)

- 골드만 삭스는 지난 해 말 유가가 배럴당 20달러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한바 있으며, EIA 등 주요 유가전망 기관들도 최근 유가 전망치를 하향조정하는 등 저유가 장기화에 무게를 두고 있음.

< EIA의 국제유가 전망 >

(2016.1월 발표)

(단위: \$/bbl)

기준 유종	2015	2016				
	평균	1/4	2/4	3/4	4/4	평균
WTI	48.67	36.36	38.02	39.69	40.00	38.54
Brent	52.32	36.36	40.02	41.69	42.34	40.15

- 주요 산유국들도 2016년도 예산 책정 시 저유가 상황을 반영

- 2016년 예산편성 시 가정한 유가 수준이 사우디 \$26/bbl, 이란 \$35/bbl, 베네수엘라 \$40/bbl 등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우리나라는 원유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주력산업의 수출비중이 높은바 이하에서는 저유가 장기화 및 이에 따른 주요 수출국 경기 둔화가 국내 주요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함.

2. 저유가가 국내 주요산업에 미치는 영향

가. 저유가가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

- 저유가는 원유도입비용 감소에 따른 무역수지 개선, 기업의 생산비용 감소 등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
 - 2015년 원유도입 평균단가는 배럴당 53.7달러였으며, 전년대비 원유도입단가가 47.5% 하락하는 등 2015년 우리나라 원유수입비용은 전년대비 42% 감소한 551억달러 기록
 - 저유가에 따른 원유도입 단가하락은 기업의 생산비용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유가 10% 하락 시 한국 제조업의 생산비가 1.03% 감소(기획재정부, 2015.1월)
 - 산업별 생산비 감소 효과는 특히 석유를 직간접적인 원료로 사용하는 정유(-7.92%), 석유화학산업(-2.02%)이 높게 나타남.
 - 저유가에 따른 실질구매력 개선 효과로 가계소비가 증가하고, 기업의 생산비용 감소가 수익 및 투자증가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경제성장률 상승에 긍정적 효과 기대
 - 유가가 10% 하락할 경우 공급측 요인에 따른 하락 시 GDP는 0.16%p 개선
 - 다만, 세계 경제 위축에 따른 수요요인이 동반될 경우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축소되어 GDP가 0.09%p 개선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남.(기획재정부, 2015.1월)

< 원유 도입단가 및 도입물량 >

구분	'14	'15	'15. 1월	'15. 12월	'16. 1월	증감률(%)	
						전년비	전월비
국제유가 (두바이유, \$/배럴)	96.6	50.7	45.8	34.9	26.9	-41.3	-23.1
도입단가 (\$/배럴)	102.3	53.7	54.4	42.3	35.4	-34.9	-16.18
도입물량 (백만배럴)	927.5	1026.2	84.8	98.3	79.5	-6.3	-19.1
수입액 (백만달러)	94,907	55,132	4,616	4,154	2,816	-39.0	-32.2

자료: 산업통상자원부(2016.1월)

- 그러나 OPEC, 러시아, 브라질 등 자원보유국들이 저유가 지속으로 재정난이 심화되고 있어 이들 신흥국에 대한 수출에 부정적 영향이 확대될 가능성도 상존

- 유가를 포함한 국제원자재 가격 하락은 주요 자원보유국의 경제성장을 둔화 및 수입수요 감소로 이어져, 국제원자재 가격 1% 하락 시 對자원 보유국 수출은 약 1.2~1.3% 감소(한국무역협회)
- 2015년 수출액이 5,269억달러로 전년대비 8% 하락한 데 이어 2016년 1월 수출액은 367억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8.5% 하락(산업통상자원부)
 - 2015년 수출액 감소는 석유제품, 석유화학제품 등 주력 수출품목의 물량확대에도 불구하고, 주로 저유가로 인한 제품 수출단가 하락에 기인
 - 2015년 4분기 이후에는 물량도 감소추세로 전환되어 주요 수출국의 수입수요 감소의 영향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최근 수출물량 및 수출단가 증감률 추이 >

구분	'15.1Q	'15.2Q	'15.3Q	'15.4Q	'15.10월	'15.11월	'15.12월	'16.1월
수출물량 증감률(%)	3.6	2.1	5.4	-3.1	-9.4	-0.2	0.9	-5.3
수출단가 증감률(%)	-6.4	-9.2	-14.1	-9.1	-7.3	-4.7	-14.9	-14.0

자료: 산업통상자원부(2016.1월)

- 특히 중동, 중남미, CIS 등 신흥국 지역에 대한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
 - 저유가 지속으로 중동, 브라질, 러시아 등 주요 산유국의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며 내수시장이 위축된 결과로 보임.

< 신흥국 지역별 수출 및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 추이 >

(백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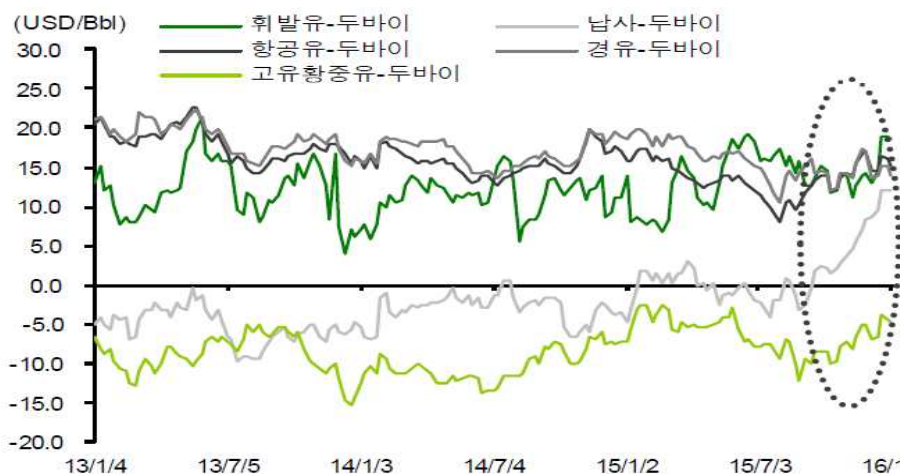
지역	'15 전체	'15.10월	'15.11월	'15.12월	'16.1월
중동	30,448	2,287	2,361	2,673	1,743
	-12.5	-25.7	-24.1	-15.1	-31.1
중남미	30,675	2,421	2,621	1,955	2,075
	-14.5	-34.8	-22.9	-34.9	-35.8
CIS	7,086	658	460	544	425
	-49.9	-35.0	-46.8	-31.1	-22.0

자료: 산업통상자원부(2016.1월)

나. 저유가가 주요산업4)에 미치는 영향

- 저유가가 산업별로 미치는 영향은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는바, 정유 및 석유화학산업은 저유가 수혜를 누리는 반면 조선, 해외플랜트 산업의 타격이 큼.
- (정유산업) 저유가에 따른 석유제품 가격 동반 하락으로 2015년 수출액이 급감했으나 높은 수준의 제품 마진에 따라 기업 수익성은 양호
 - 2015년 석유제품 수출액은 저유가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36.9% 하락한 321억달러 기록
 - 2013년 수출액은 571억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주력수출품목 중 1위를 차지했으나 이후 유가하락과 동반하여 수출액 하락세가 지속
 - 정유산업은 원유 매입시점과 제품 생산·판매시점 간의 시간차5)가 존재하는바 2014년 지속적인 유가하락에 따른 재고평가 손실 발생으로 적자를 기록했으나 2015년 저유가 안정화와 견조한 수요에 힘입어 큰 폭의 흑자로 전환
 - 국내 정유기업들의 영업이익은 SK이노베이션의 경우 2014년 -2,313억원에서 2015년 1조 8,494억원, 에스오일은 2014년 -2,897억 원에서 2015년 9,778억 원으로 상승
 - 2016년에도 저유가가 지속되는 가운데 휘발유, 나프타 등의 정제마진 강세로 국내 정유기업들의 양호한 실적이 이어질 전망
 - 저유가에 따른 실질소득 증가효과로 석유제품 수요는 개선되는 반면 산유국 정제설비 프로젝트 지연으로 증설 속도는 둔화되어 높은 수준의 정제마진 지속될 것으로 보임.

< 두바이유 대비 석유제품 가격 스프레드 추이 >



자료: Bloomberg,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재인용

4) 국내 주요산업 중 특히 유가와 연관성이 높은 정유, 석유화학, 조선·해양플랜트, 해외플랜트 산업 등 4개 산업에 대한 영향 파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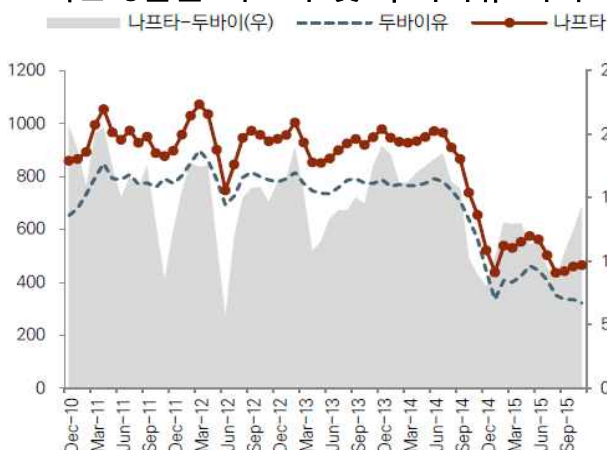
5) 우리나라의 경우 통상 35~40일 정도 소요

- 저유가로 미국 셰일오일 생산량 증가세가 둔화되고, 원유수출 허용 등에 따라 두바이유 대비 WTI유 가격이 상대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북미 지역 정제설비 원가경쟁력이 약화됨.
- 한편, 두바이유 가격이 상대적으로 가장 낮아진 가운데 이란의 원유 공급경쟁가세 등으로 아시아 원유도입 단가가 더욱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 국내 정유 기업들의 추가적인 원가 절감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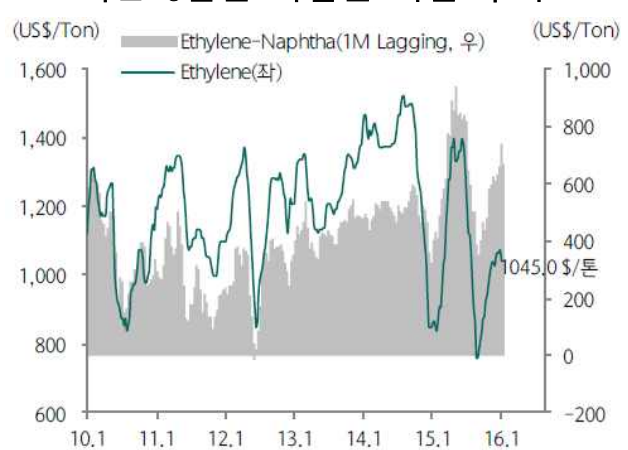
□ (석유화학산업) 2015년 저유가로 수출액은 급감했으나 원재료인 나프타 가격이 안정화되며 수익성은 대폭 개선

- 2015년 석유화학제품 수출액은 유가하락에 동반한 석유화학제품 가격 하락으로 인해 전년대비 21.6% 하락한 378억달러 기록
- 석유화학제품의 원재료인 나프타 가격이 저유가와 함께 하향 안정화된 반면, 석유화학제품은 수급타이트 등으로 인해 가격하락폭이 상대적으로 낮아 국내 석유화학기업들이 2015년 높은 수준의 이익 향유
- 저유가로 원가경쟁력이 약화된 미국 에탄 크래커 및 중국 석탄화학설비 신증설 지연, 일본 노후화된 설비 폐쇄 등으로 에틸렌 수급 타이트 지속 전망
- 에틸렌 등 석유화학제품은 저유가에 따른 실질소득 증가 효과 등 견조한 수요가 유지됨에 따라 원료인 나프타 가격간의 스프레드가 높은 수준 유지
- 롯데케미칼과 대한유화의 2015년 각각 1.56조원과 2,628억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

< 최근 5년간 나프타 및 두바이유 가격 >



< 최근 6년간 에틸렌 마진 추이 >



자료: Koreapds(2015.12월), Cischem, 하나금융투자 리서치센터 재인용

- 에틸렌 계열 제품의 수급 타이트, 원가경쟁력 개선 등으로 단기적으로 양호한 실적이 이어질 전망

- 중국 경제 성장 둔화가 지속되겠으나 미국, 유로존 등 선진국 경기 회복 조짐이 석유화학제품 수요증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
- 한편, 나프타 가격 하향 안정화에 따른 원가경쟁력 개선으로 국내 NCC 업체 중심의 실적 호조세가 지속될 전망
 - 원재료인 나프타의 경우 수입선이 미국, 러시아 등으로 다변화*되고, 국내 자급률이 상승**하는 등 수급상황이 완화되는 한편, 저유가 영향으로 가격 하향 안정화 지속 가능성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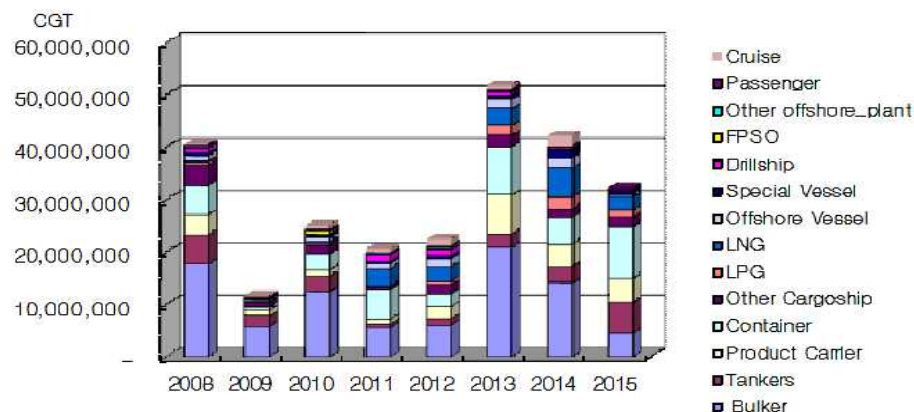
* 미국산 나프타 물량 비중이 2013년 1%미만에서 2014년 5%(125만 톤)로 급증, 러시아산 물량 비중은 2014년 18%(442만 톤)에 달함.

** 한국 나프타 평균 자급률: ('13) 55% → ('15) 60%

□ (조선·해양플랜트 산업) 저유가로 해양플랜트 시장이 붕괴되고, 친환경·고효율 선박인 에코십 투자가 위축되는 등 선박 수주 급감

-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은 저유가의 영향으로 2014년 이후 큰 폭으로 감소
 - 2015년 발주량은 전년동기대비 24.1% 감소한 3,377만 CGT를 기록하고 발주액은 전년대비 38.9% 감소한 690억달러로 집계
 - 에코십 투자 확대의 영향으로 지속적인 발주가 이어지고 있는 대형 컨테이너선과 저유가에 따른 수요증가로 해운시황이 개선된 탱커(유조선)를 제외한 대부분의 선종 발주가 큰 폭으로 감소
 - 특히, 저유가로 직격탄을 맞은 해양플랜트 시장은 사실상 붕괴되어 2015년 Drill-ship이나 FPSO 신조 수요는 전무

< 선종별 세계 발주량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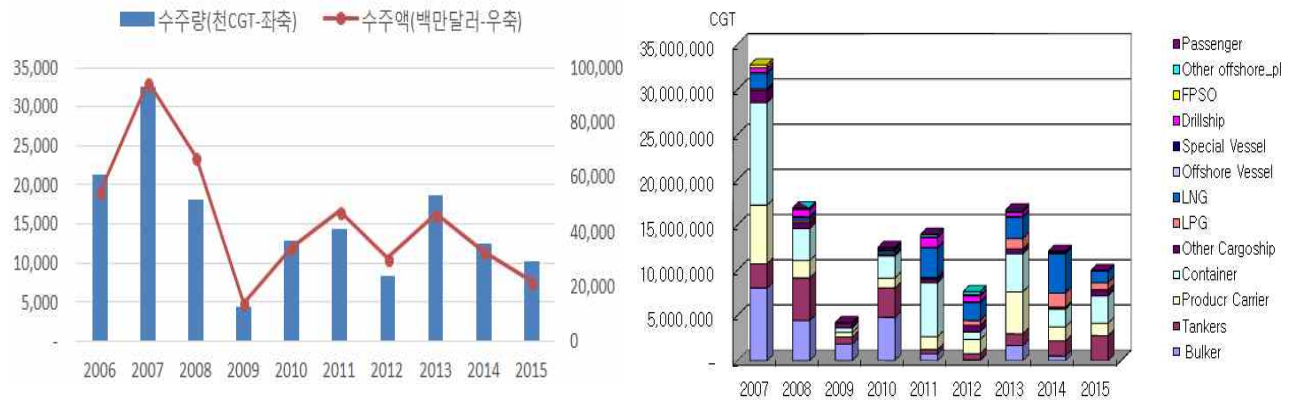


자료: Clarkson

- 우리나라 선박 수주도 저유가와 세계 시장 침체의 영향으로 2014년 이후 급감

- 2015년 수주량은 전년대비 19.3% 감소한 1,015만 CGT, 수주액은 전년대비 33.5% 하락한 218억달러를 기록한데 이어, 2016년 1월 수주건수는 0건
- 특히 2015년 해양플랜트 수주는 FSRU 한 척에 그침.

< 국내 조선산업 수주량 및 수주액 추이 > < 국내 조선산업 선종별 수주 실적 >



자료: Clarkson

- 저유가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해양플랜트 부진 지속 및 친환경·고효율 선박인 에코십 투자 위축 등이 예상되는바 2016년은 2009년 이후 상황이 가장 악화될 전망
- 해양플랜트는 배럴당 30달러대를 전후한 현재의 저유가 상황에서 수주 증가 기대가 어려움.
- 선박의 SOx(황산화물) 배출 규제가 강화되는 2020년까지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고, 저유가로 연료비 부담이 낮아져 에코십 전환 유인이 사실상 약화
- 셰일가스 붐으로 국내 조선사들이 최근 몇 년간 LNG선 수주가 확대되었으나 저유가에 따른 미국 셰일가스 생산 둔화 등으로 향후 LNG선 투자도 위축될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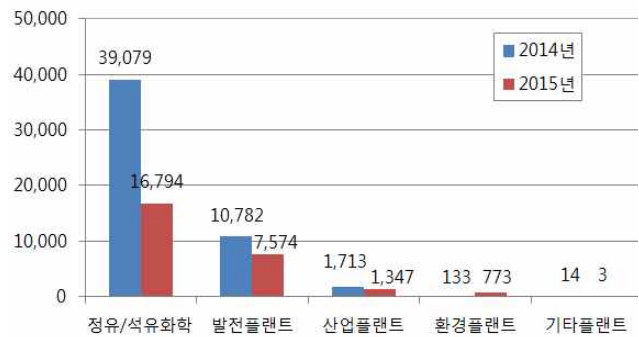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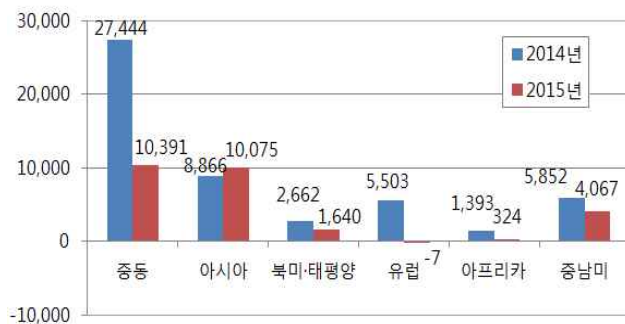
□ (해외플랜트 산업) 플랜트 발주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중동 산유국들의 재정악화에 따라 2015년 플랜트 발주가 전년대비 대폭 축소

- 저유가 국면이 오래 지속되면서 중동 산유국 재정수입 감소에 따른 석유·가스 부문 투자 축소로 우리기업들이 주력하고 있는 정유 및 석유화학 부문의 프로젝트 발주가 큰 폭으로 감소
- 2015년 플랜트 수주금액은 전년대비 48.8%이 하락한 265억달러 기록
 - 중동 지역 수주액은 2014년 274억달러에서 2015년 104억달러로 62% 감소
 - 정유·석유화학플랜트 수주액은 2014년 391억달러에서 2015년 168억달러로 전년대비 57% 감소

- 대부분의 지역 플랜트 수주가 전년대비 감소한 가운데 예외적으로 아시아 지역의 플랜트 수주액은 전년대비 13.6% 상승한 101억달러 기록
- 2016년도 저유가의 영향으로 플랜트 수주 부진이 지속될 전망
 - 2016년 1월 플랜트 수주액도 전년동기 대비 78%가 급감한 12.5억달러를 기록하는 등 저유가 여파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음.
 - 이란 경제제재 해제 등으로 이란발 발주 확대가 기대되나 타 중동지역의 발주 감소폭이 더욱 클 것으로 보임.



< 지역별·플랜트 종류별 수주액 추이 >

(백만\$)



자료: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

< 저유가가 주요 산업에 미치는 영향 >

영향	구분	주요 내용
긍정적 	정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유가에 따른 석유제품 가격 동반 하락으로 2015년 수출액이 전년대비 36.9% 급감 그러나 저유가로 인한 실질소득 증가 효과 등으로 유럽 등지에서 견조한 수요를 보이며 높은 수준의 제품 마진 시현
	석유화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유가로 2015년 수출액은 전년대비 21.6% 감소 원재료인 나프타 가격이 하향안정화되고, 수급이 타이트해지면서 석유화학기업들의 수익성은 대폭 개선
부정적 	조선·해양 플랜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유가로 해양플랜트 시장이 붕괴되고, 친환경·고효율 선박인 에코십 투자가 위축되는 등 2015년 선박 수주액이 전년대비 33.5% 급감
	해외플랜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체 수주액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중동지역 발주가 대폭 감소하며 2015년 수주액이 전년대비 48.8% 급감

3. 시사점

- 저유가에 따른 산업별 위기 및 기회요인을 지속적으로 파악하는 한편,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대응이 필요
 - 정유 및 석유화학산업은 현재 저유가 상황에서 호황을 누리고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구조적인 공급과잉 체제 및 글로벌 공급경쟁 심화가 예상되는바 국내기업의 수직계열화, 고부가가치 제품으로의 사업 포트폴리오 전환 등을 통한 체질 강화 필요
 - 국내 조선산업은 벌크선을 제외하고 탱커, 대형 컨테이너선, LNG선 등에서 세계 시장점유율 1위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글로벌 공급과잉이 심각한 상황으로 에코십 등 차별적인 경쟁력 강화 방안이 절실
 - 해외 플랜트 부문은 중동 외 지역으로의 수주지역 다변화 및 수주 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신흥 산유국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바 해당 시장에서는 특히 선별적 수주와 한층 강화된 리스크 관리가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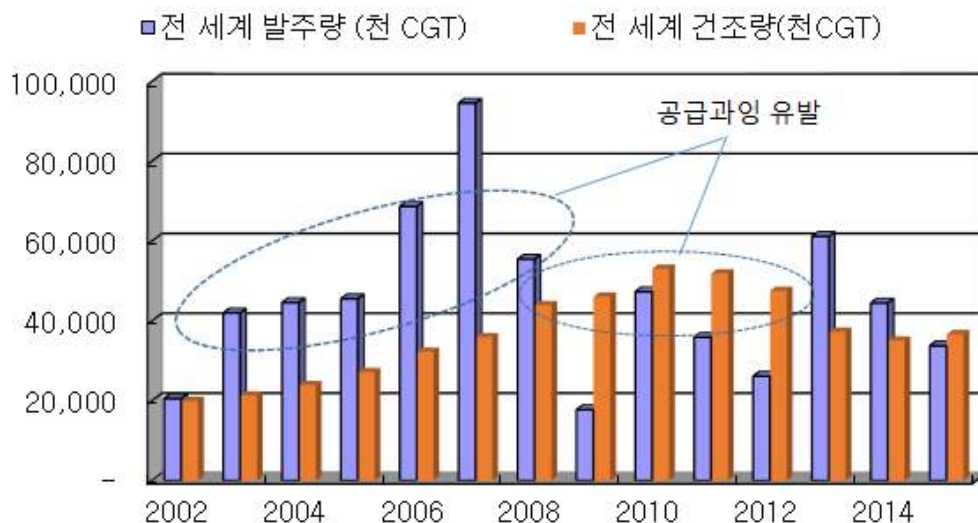
III. <이슈 2> 주력산업의 구조조정 이슈

1. 해운산업

□ 전 세계 해운산업은 2000년대 호황기를 거치면서 심각한 공급과잉 상황을 만들었음.

- 2003년경부터 중국의 경제개발 효과로 인하여 해운시장의 규모가 성장하고 운임이 상승하면서 선박 발주량이 급격히 증가함.
- 그러나 한국과 중국 조선소의 호황초기 설비증설 부진으로 선박이 빠르게 건조되지 못하여, 다량 발주된 선박들이 금융위기 이후인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인도되면서 선박량 과잉문제가 발생함.

< 전 세계 신조선 발주량 및 건조량 추이 >



자료 : Clarkson

- 현재 해운업의 선박량 과잉은 선종에 따라 약 15~23% 수준으로 추정

< 선종별 과잉 선박량 추정치 >

선 종	현재 선박량	적정추정 선박량	추정 과잉률
벌크선	778.8백만dwt	약 633백만dwt	약 23%
탱커(유조선)	347.8백만dwt	약 286백만dwt	약 21%
탱커(석유제품선)	140.8백만dwt	약 118백만dwt	약 19%
컨테이너선	2,021만TEU	약 1,760만TEU	약 15%

* 해외경제연구소 추정치임.

- 해운산업은 자국의 항만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특히, 비상사태시 중요성이 매우 높은 특성이 있음.
 - 자국선적 선박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항만산업의 특성상 해운업은 해당국의 항만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
 - 또한, 전쟁이나 국제 분쟁 등 비상시에는 자국선적 선박이 없을 경우 자국 필요물자의 수송이 어려워 국가의 생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해운업의 중요성 때문에 실질적인 해운사의 감축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비상시의 중요성 등 때문에 유럽 등 각국은 각종 지원정책을 통하여 해운업을 유지하는데 노력하고 있어 실질적 운항 감축이 어려운 상황임.
- 우리나라 해운산업의 구조조정은 컨테이너선 양대 해운사의 문제로 압축되고 있으며, 정부 역시 해운시장에서의 기존 점유율과 경쟁력을 유지하려는 고민이 수반되고 있음.
 - 국내 해운산업의 경우 대형 벌크선사들은 성공적인 M&A로 흑자 전환에 성공하였고 중소중견 해운사와 탱커선사는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높지 않음.

< 컨테이너선 이외의 국내 해운사 구조조정 현황 >

선종	대상 기업	구조 조정 현황
벌크선	대 한해운	2013년 SM그룹이 인수하여 흑자전환 성공
	팬오션	2015년 하림그룹이 인수하여 흑자전환 성공
탱커	SK해운	자사물량(SK석유사업 부문) 등이 뒷받침 되어 구조조정 대상이 아님.
중소중견	장금상선, 폴라리스 등	한중, 한일 노선 등을 주로 운항하며, 비교적 활발한 노선이므로 상황이 나쁘지 않음.

- 따라서 현재 해운업 구조조정의 문제는 한진해운(세계 8위)과 현대상선(세계 18위) 등 양대 컨테이너선사의 문제가 남아있음.
- 정부는 양사의 합병을 포함하여 다각도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양사는 서로 다른 동맹에 소속되어 있어 합병할 경우 한 회사의 시장을 잃을 수도 있고 양사 모두 경쟁력 있는 선박이 많지 않아 합병의 시너지가 없다는 지적임.

□ (고려사항 1) 해운업 구조조정시 효율적인 고효율 대형선박 지원책이 고려되어야 함.

- 현재 양사의 어려움 중 하나는 14,000TEU급 이상의 고효율 대형선박의 보유가 없다는 점이며, 이는 향후 동맹에서의 퇴출로도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경쟁력의 문제임.
- 향후 구조조정 대책은 양사의 재무개선 외에도 정부와 정책 금융권의 한정된 재정으로 가장 효율적인 고효율 초대형선에 보유를 위한 지원책이 포함되어야 함.

□ (고려사항 2) 또 하나의 고려사항은 컨테이너선 시장 내 해운 동맹의 변화가 예상되는 바 국적선사들이 이 속에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방향의 지원이 필요함.

< 글로벌 해운동맹 현황 >

해운동맹	점유율	선사(세계 순위, 시장점유율)
2M	28.4%	Maersk(1위, 15.2%), MSC(2위, 13.2%)
G6	18.5%	Lloyd(4위, 5.0%), OOCL(11위, 3.0%), NYK Line(14위, 2.5%), APL(12위, 2.9%), MOL(9위, 3.2%), 현대(18위, 1.9%)
CKYHE	17.2%	COSCO(6위, 4.4%), 한진(8위, 3.3%) , Yang Ming(13위, 2.5%), K Line(16위, 2.1%), Evergreen(5위, 4.9%)
Ocean3	14.8%	CMA CGM(3위, 9.0%), CSCL(7위, 3.6%), UASC(15위, 2.2%)

자료 : Alphaliner, 선주협회

- 현재 CKYHE소속의 세계 6위 COSCO와 Ocean 3 소속의 세계 7위 CSCL이 합병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들은 세계 4위권으로 자리매김하는 동시에 중국시장 지배권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

- Ocean 3의 리더인 세계 3위 CMA CGM이 싱가포르 선사인 G6 소속 세계 12위 APL을 합병할 것으로 발표되어 아시아시장 강화 전략의 의도를 드러내고 있음.
- 이러한 가운데 통합 중국선사의 선택에 따라 기존 해운동맹의 구도가 흔들리거나 새로운 동맹의 구성 가능성도 있어 국적선사들의 신중한 전략적 판단이 필요함.
- 새로운 동맹 구성시 국적선사들은 세계 5위의 허브항인 부산항의 지배력을 기반으로 아시아 기반을 강화하려는 동맹에 새롭게 합류하여야 할 것임.
- 또한, 이러한 동맹가입을 위해서는 고효율 대형선의 보유와 아시아 화주들에 대한 영업력 강화 등이 필요하므로 이에 대하여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요구되며 상황을 예의주시하여야 할 것임.

2. 조선산업

- 조선산업은 2000년대 호황기를 통하여 공급능력 과잉이 발생하며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호황기 과정에서 한국, 중국의 무분별한 조선업 투자로 조선소들이 신규 설립되면서 조선업 역시 설비과잉이 발생함.
- 현재 조선업의 설비과잉은 시황악화에 따라 40% 이상으로 추정되며 시황 호전에 따라 과잉률은 축소 가능성이 있음.

< 전 세계 신조선 설비과잉 추정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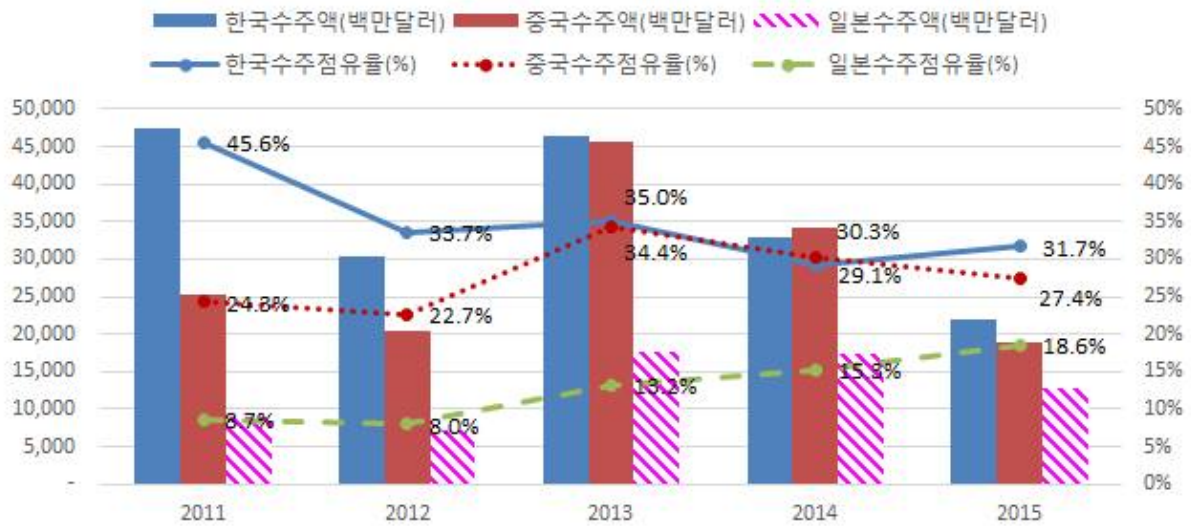
연도	신조선 건조능력	전 세계 발주량	추정 과잉률
2014	5,000만CGT	4,448만CGT	약 12%
2015	4,800만CGT	3,377만CGT	약 42%

자료 : 건조능력 추정치 및 발주량은 Clarkson

- 조선업은 높은 고용효과를 가진 기간산업이며 한중일 3국의 과점적 시장임.
- 거대 기간산업으로 진입장벽이 높으며 높은 고용효과를 가짐.
- 한중일 3국이 약 90%의 시장점유율을 가지고 있으며 호황기에 설비를 크게 늘린 중국의 구조조정이 시장에 가장 큰 효과를 기대

< 한중일 3국의 수주점유율 >

한중일 3국의 수주액 추이



자료 : Clarkson

□ 중국의 조선산업 구조조정은 아직까지 큰 성과가 드러나고 있지 않음.

- 중국 정부는 2013년 “구조조정 실시방안과 과잉생산해소를 위한 의견”을 발표하며 2015년까지 부실조선소의 퇴출과 주요 조선소의 통폐합을 통한 경쟁력강화 의지를 표명함.
- 그러나 고용문제로 인한 중국 정부의 적극성 부족과 지방 정부의 반발 등으로 뚜렷한 성과는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음.

□ 국내 조선산업 구조조정은 주로 중형조선소 문제로 압축되고 있음.

- 대형 조선소들의 경우 대규모 적자사태 이후 자율적인 인원 및 자산 조정을 시행중임.
- 중형 조선소들의 경우 과거 호황기 28개에서 현재 7개사 정도만이 영업과 조업을 시행중이며 STX 등 일부 조선소들의 설비 축소도 이루어진 상황임.
- 남은 문제는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중형조선소들의 경쟁력 강화와 실적 개선 방안임.

□ (고려사항) 여전히 한국 조선산업은 최고의 경쟁력을 보유한 만큼 무조건적인 감축보다는 특화전략 등을 통한 경쟁력 강화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음.

- 한국 조선산업은 벌크선을 제외하고 범용선박인 탱커부터 고부가 선박인 LNG선까지 대부분의 선종에서 아직까지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최고 경쟁력을 보유

< 2015년 주요 선종의 국가별 수주점유율 >

선종	한국	중국	일본
벌크선	0%	20.9%	65.4%
탱커	39.6%	32.6%	21.7%
대형 컨테이너선	38.2%	32.5%	22.5%
LNG선	50.8%	4.1%	43.8%

자료 : Clarkson

- 특히, 중대형 조선사들의 주력 선형이 탱커 기준 약 5만~12만 dwt으로 겹쳐, 이에 대한 조정을 통하여 선형별 특화전략을 고민할 필요가 있음
- 특화전략을 통하여 과도한 경쟁을 방지하고 영업경쟁력 및 품질, 생산 기술력 강화가 가능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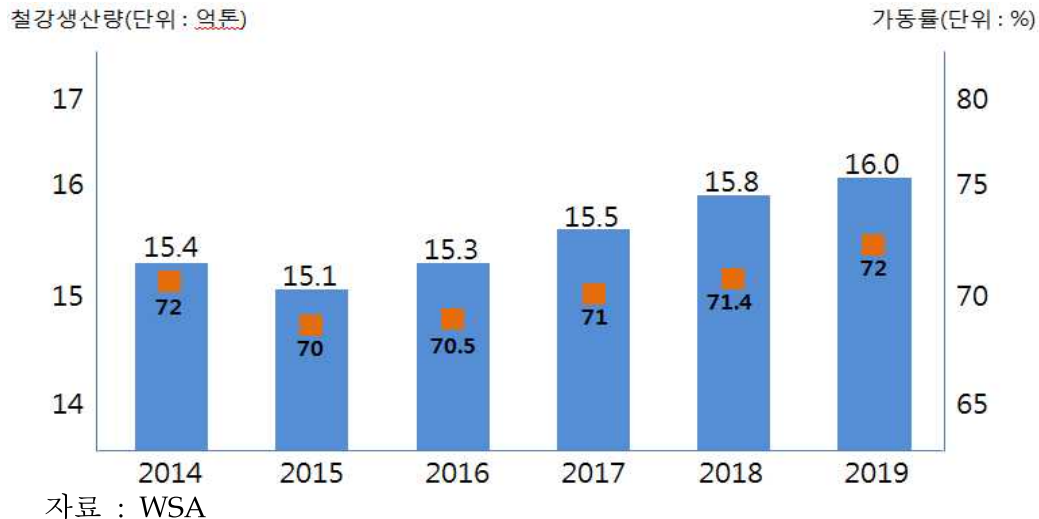
3. 철강산업

□ 수요는 정체된 반면, 아시아 지역 중심으로 철강산업 투자가 확대되면서 철강 공급은 과잉인 상황

- '15년 기준 세계 조강생산용량은 21억 톤으로 추정되며, 수요대비 약 6억 톤이 공급과잉
- 공급과잉에도 불구하고 수입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신규 공장건설이 중국, 인도네시아, 중동 등 아시아지역에 계획되어 있음.
 - '15년 660만 톤, '16년 340만 톤, '17년 200만 톤 증설이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증설 계획
 - 최근 포스코는 이란에 2조원을 들여 160만톤 규모의 제철소 건설에 대해 이란 정부와 MOU 체결

- 공장가동률이 90%를 넘었던 2006년을 정점으로 하락추세를 지속하고 있어 철강산업은 공급조절을 위한 구조조정이 필요한 상황
- '16년 세계 철강산업 구조조정이 원활히 이루어진다면, 2017년 이후 철강산업 공장가동률은 서서히 증가할 전망

< 세계 철강생산량 및 가동률 현황 및 전망 >



□ 세계 철강 공급과잉 물량 중 한국 26백 만톤, 중국 424백 만톤, 일본 54백 만톤 등 약 5억 톤이 아시아 지역에 집중

- 세계 철강 수요 15억 톤 중 아시아 지역 수요는 중국 7.4억 톤을 중심으로 약 10억 톤이며, 2015년 기준 약 40%가 공급과잉인 상황
- 공급과잉과 수요 감소가 맞물리면서 철강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2015년 철강기업들의 수익성이 악화

□ 2015년에 이어 2016년 아시아 지역 수출환경은 열악한 상황 지속

- 저유가 상황 등 불확실한 경기 상황으로 인해 2016년 1월 철강 수출액은 22억 달러로 전년대비 22% 감소하여 수출 부진이 지속되고 있음
- 2016년 중국 경제 성장률이 6% 중반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경기부진에 따른 철강 수요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
- 중국은 공급과잉 물량을 밀어내기식 수출로 해결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리나라 수출도 부진한 상황이 지속될 전망
- 2015년 1월부터 10월까지 중국 철강 수출량은 9,213만톤으로 전년대비 24% 증가했으며 증가세는 2016년에도 이어질 전망

< 중국 철강 수출 현황 >



□ 한·중·일 철강산업은 올해 구조조정을 통해 공급량 조절에 나설 예정

- 2015년 경기하락에 따른 수요 감소로 아시아 지역 철강 기업들의 가동률이 떨어지고 있음.
 - 고정비 부담이 큰 장치산업 특성상 가동률 하락은 수익과 직결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음.
 - 중국의 경우 수익을 담기 위한 가동률 마지노선인 80%를 크게 하회한 60% 대 가동률을 기록하고 있어, 적자 폭이 크게 늘어나고 있음.
 - 국내 철강산업은 이보다 양호한 80%를 기록하고 있지만, 현 상황이 지속될 경우 국내 철강기업들의 수익성이 악화될 우려가 존재
- 중국 정부는 향후 신규 건설 억제 및 1억 ~ 1.5억 톤(이를 위해 매년 1,000억 위안 투입) 설비 감축 등 철강산업에 대한 강한 구조조정을 시행할 계획
 - 중국 철강업체의 2015년 11월 누적 순손실 규모가 531억위안에 이르는 등 산업 전반적인 적자 규모 확대되어 구조조정을 더 이상 지체하기 어려운 상황
 - 시장의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기대하였으나, 지지부진한 구조조정의 속도를 내기 위해 중국 정부는 적극적인 개입으로 스탠스가 전환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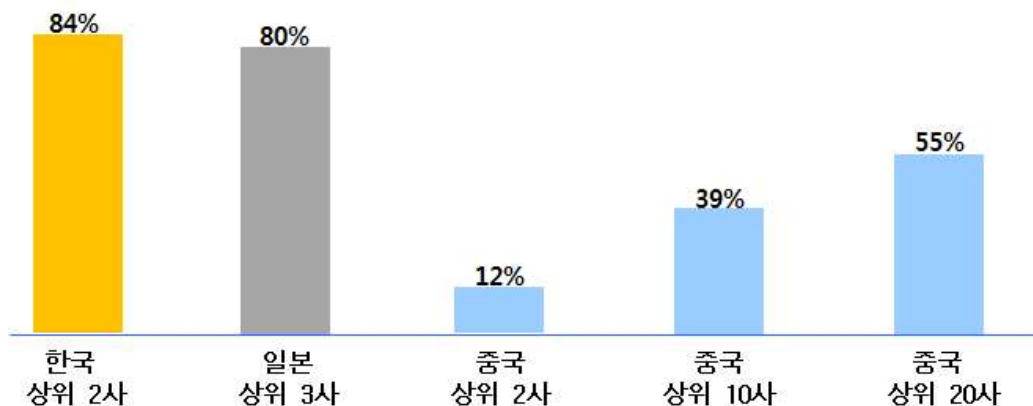
- 일본은 아시아 지역 공급과잉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중복사업 인수합병과 설비 합리화를 위한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음.

- 일본 내 1위, 글로벌 2위 철강기업인 신일철주금이 4위 닛산제강을 1조원에 인수하여 일본 철강산업은 신일철주금, JFE홀딩스, 고베제철 3개사로 재편될 예정
- 생산성이 떨어지는 고로를 폐쇄하고 여기서 절감되는 비용을 강점을 가지고 있는 스테인리스 강판 등에 투자를 통해 경쟁력 확보

□ 현재의 어려운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선 원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산업 집중도 증대와 중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적극적인 대체 노력이 필요

- 한·중·일 철강기업 중 중국 기업들이 특히 고전하고 있는 이유는 산업 집중도 차이에 기인
 - 일본 상위 3개사가 전체 조강생산의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상위 2개사 비중이 84%에 달함.
 - 중국의 경우 상위 2개사 비중이 12%, 상위 10개사 비중 39%에 불과하여, 중소 철강업체 난립에 따른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상황
- 국내 철강기업들의 상황이 중국 기업대비 상대적으로 나은 상황이나, 현재의 저성장 구조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 선제적인 대응 노력이 필요
 - 국내 철강시장에서 공급과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기로, 후판, 강판, 합금철 분야에 대한 M&A 및 설비감축을 통한 산업 집중도 증대가 필요
 - 또한 국내 철강 수요의 30%를 중국 및 일본에서 충당하고 있으며, 이를 국내 제품으로 대체를 통해 국내 철강사 수요를 늘려 주는 방안이 필요

< 한·중·일 상위 기업들의 점유율 현황 >



자료 : 포스코경영연구원

4. 해외건설

가. 산업 동향 및 국내 경쟁력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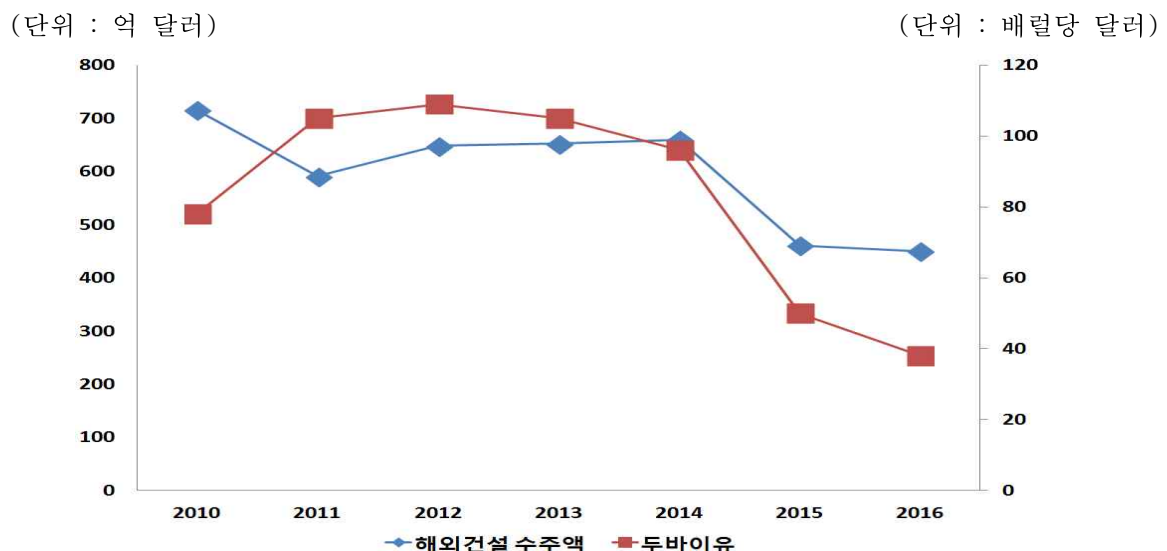
□ 2015년 해외건설 수주액은 전년대비 30% 감소한 461억달러

- 두바이유 기준 2014년 평균 유가는 배럴당 96달러에서 2015년 50달러로 48% 하락
- 이로 인해 중동 수주액이 2014년 313억 달러에서 2015년 165억달러로 47% 감소
 - 중동 수주액이 해외건설 수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넘고 있는 우리나라 수주 구조상 유가하락은 중동 수주 감소에 직격탄을 날림.

□ 2016년 해외건설 수주액은 전년대비 2% 감소한 450억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 2016년 평균 유가는 전년대비 24%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외 건설 수주 부진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
- 이란 개방과 아시아 인프라 시장에 따른 수주 증가가 중동 수주 감소분을 상쇄하기에 역부족인 상황
 - 이란 및 아시아 수주 확대 기대감이 있으나, 저유가 상황에 따른 발주 감소가 더 클 것으로 예상

< 해외건설 수주액 VS 유가 동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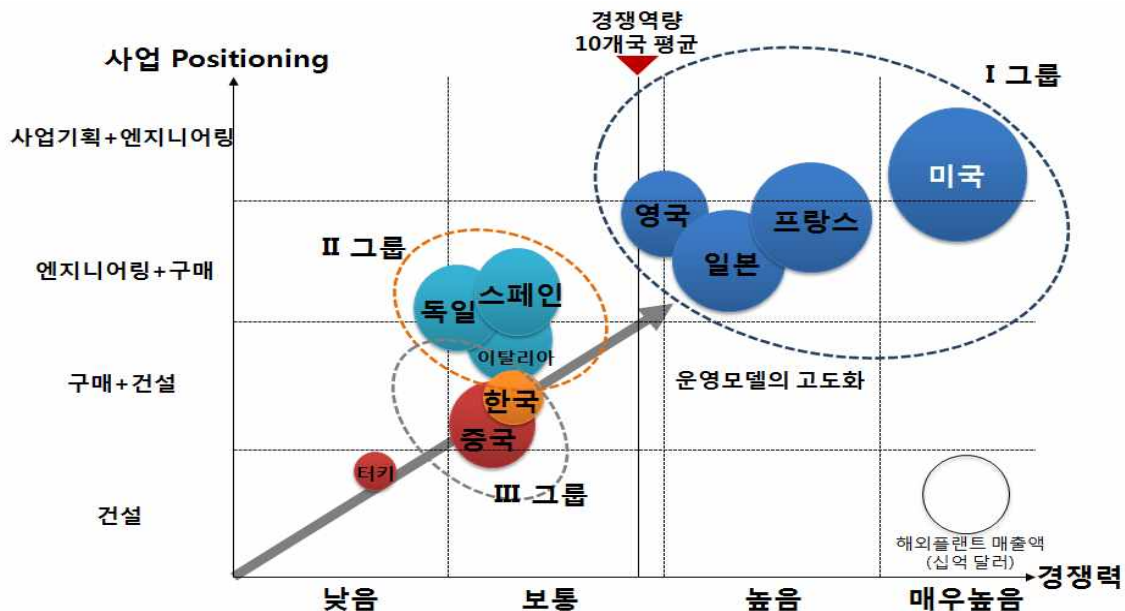


자료 : Koreapds, 해외건설협회

□ 국내 건설산업은 성장을 위한 신성장 동력 마련이 절실한 상황

- 우리나라 해외건설 수주가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향후 중국 및 인도의 추격이 거세질 전망
- 우리나라 시공경쟁력 순위 상승(2013년 4위)은 고무적이나, 단순시공 위주의 건설은 경쟁력 증대에 한계가 있음.
 - 순위 상승은 긍정적인 요인으로 평가되나, 14년도 단순도급형 공사 비중이 85%로 여전히 높으며, 수주의 대다수는 단순시공에 집중되어 있음.
 - 특히 해외건설시장의 PPP 사업 확대 추세에도 불구하고 국내 기업들의 개발형 사업 비중이 3.1%에 불과
- 우리나라의 인건비 수준은 미국의 1/3수준, 일본의 1/2 수준이지만, 중국·인도·터키 등의 2배 이상으로 실질적인 가격 경쟁력에는 한계가 존재
- 우리나라 설계경쟁력은 지난 3년간 정체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는 고부가가치 창출 역량 부족으로 이어지고 있음.
 - 건설분야에 치중되어 있는 국내 기업들의 사업구조를 사업기획과 엔지니어링 등 수익성이 높은 분야로의 전환이 필요

< 국내 건설사의 사업현황 >



자료 : 산업연구원

나. 해외 선진기업 경쟁력 강화 사례

- 외국 선진 건설사의 성장동력 확보에 대한 사례 연구를 통해 국내 건설사의 성장전략의 방향성 수립이 필요

(1) Grupo ACS(스페인)

- Grupo ACS는 성장동력을 시장다변화와 M&A를 통한 외형 확대에서 찾고 있음.
 - Grupo ACS사의 2014년 해외건설 매출액은 440억달러이며, 자국 매출액은 70억달러로 해외건설 비중이 86%를 차지
 - Grupo ACS 성장전략을 살펴보면 M&A를 통한 외형 확대로 해외사업에 대한 협상력을 강화
 - Grupo ACS사는 1983년 이후 14번의 M&A를 통해 외형 확대, 진출지역 다변화, 기술경쟁력 확보 등의 해외건설 분야에서 경쟁력을 키워 나가고 있음.
 - 특히, 아시아 지역 수주액이 전체 매출의 50%를 차지하는 등 아시아 지역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2) Bouygues(프랑스)

- 2014년 기준 117억 유로 매출을 기록한 Bouygues사는 금융조달, 설계, 건설, 운용, 사후관리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full-service, full management를 추구
 - 고객에게 비용, 일정, 품질에 더 많은 가치를 제공한다는 개념 아래 종합적이고 고부가가치의 제품과 서비스를 강화하는 종합 서비스 전략을 추진
 - 도로사업 부문의 Colas는 도로의 건설에서부터 운영 및 자재생산까지 도로사업과 관련한 전 분야에 진출
 - 건설부문의 이러한 사업 전반에 걸친 노하우와 역량을 바탕으로 대형 공공 프로젝트 및 민간투자사업 참여
 - 민간 자금을 투자하는 PPP⁶⁾, 혹은 PFI⁷⁾ 사업의 수주에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음.
 - 금융공학 역량, DB계약사업의 수행 역량, 빌딩 운영 및 유지관리 역량부분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 확보

6) PPP(Public Private Partnership) : 개발도상국에 개발지원을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협력하여 수행하는 접근 방식

7) PFI(Private Finance Initiative) : 도로, 철도 등의 건설과 운영, 유지관리, 사업자금의 도입 등 전 과정을 건설회사 등 민간 기업에 맡기는 새로운 사회간접자본 구축방식

(3) Strabag(오스트리아)

- Strabag사의 2014년 매출액은 136억 유로이며, 매출의 85%가 해외건설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진출 지역의 확대, PPP 사업에의 투자, 틈새시장 공략, 가치사슬 확장 등의 성장전략을 가지고 있음.
 - 현재 유럽에 편중되어 있는 매출 구조를 다변화하기 위해 중동 및 아시아 지역 진출 확대를 위해 노력 중
 - 53%를 오스트리아와 독일에서, 30%를 동유럽 국가에서, 그리고 12%를 나머지 유럽 국가에서 올리고 있어 유럽에 편중된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음.
 - 유럽지역에서 성공을 바탕으로 중동 및 아시아 지역 진출을 꾀하고 있으며, 아시아 지역 PPP 시장 진출이 늘어날 전망
 - Strabag는 인프라와 빌딩 건축과 같은 PPP 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왔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확장할 계획
 - 2013년 PPP 사업에 지분 투자된 금액은 410만 유로이며, 전년대비 6% 증가
 - 2009년 이후 지분 투자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아시아 지역으로 확대를 계획 중
 - Strabag사의 틈새시장 전략은 공공발주 수요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반면, 민간발주 수요는 다시 증가하고 있는 현 추세를 바탕으로 함.
 - 건축, 토목, 교통 인프라 및 터널과 같은 전통적인 건설 분야에도 집중할 뿐만 아니라 철도, 환경, 수로 등과 같은 틈새시장 공략을 강화
 - 빌딩 및 인프라의 기획 단계로부터 건설, 운영까지가 단일 소스로부터 수행된다면 많은 반복 작업 내지 비효율성을 제거할 수 있다는 개념으로 경영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음.

다. 시사점

- 국내 해외건설 경쟁력 확대를 위해선 기술고도화 및 지역다변화가 필요
 - 플랜트를 포함한 국내 해외건설산업의 당면한 문제점⁸⁾은 다음과 같음.
 - 치열한 수주 경쟁 및 후발국 EPC 업체추격, 저수익 운영모델로 인한 낮은 수익성, 낮은 기자재 조달율을 꼽을 수 있음.
 - 과거 자국시장에 치중했던 중국 건설기업들의 해외진출이 가시화되고 있어, 가격경쟁력이 중요한 시장에서 국내 기업과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음.

8) 플랜트산업협회, “플랜트 수출에 따른 요소부품 수출확대 전략”, 2012

- 우리나라의 경우 2012년 매출액은 414억달러, 기업수 15개, 2013년 매출액은 424억달러, 기업수는 13개로 전년대비 감소함.
- 국내 기업들은 국내 공사물량 감소에 따른 매출 유지를 위해 2009년 이후 공격적인 해외 진출을 시도하였으며, 2013년~2014년 저가 수주에 따른 대규모 실적 악화를 기록함.
 - 해외건설은 해외현장 정세변화, 환율변화, 공기지연, 추가원가 투입 등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사업관리 역량이 매우 중요
 - 외형 확대에 치중해 온 국내 건설사들의 전략으로 인해 중동시장에서 국내 기업간 수주경쟁으로 인한 저가수주와 리스크 관리 역량 부족은 실적악화로 이어짐.
- 기본설계 등 원천기술 부족으로 인한 선진국 대비 기술경쟁력이 70%에 불과한 상황이며, 국산 기자재 사용률도 50% 수준
 - 국내플랜트 EPC기업들은 사업관리, 실시설계, 기자재 조달, 시공분야는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기본설계 및 FEED를 포함한 핵심영역에서 원천기술부족으로 선진국 대비 기술경쟁력이 취약
 - 프로젝트 전체 공사비에서 기자재(요소부품 포함)가 평균 57%로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국산화율 평균 약 62%, 국내산 기자재 조달율은 약 41%로 낮은 상황
- 기술경쟁력 확보 및 수익 모델 확대 등의 기술고도화가 필요하여,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M&A 전략에 대한 검토가 필요
 - 세계적으로 기획에서 운영까지 밸류체인 통합이 추세인 상황에서 국내 건설 기업들은 시공분야에 집중되어 있는 취약한 사업구조를 가지고 있음.
 - 해외건설시장에서 선전하고 있는 스페인 기업들의 경우 M&A를 통해 기술력 확보, 공종다변화, 진출지역 확대 등의 문제를 해결함.
 - 중장기적으로 자체 기술개발을 통해 기술력을 확보해야 하겠지만, 단시간내에 경쟁력 확대를 위한 수단으로 M&A 방식에 대한 고려가 필요
- 해외건설 수주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중동지역 비중을 낮추고 20%에 불과한 아시아시장 개척 노력이 필요
 - 해외건설시장에서 아시아시장이 가장 중요한 시장으로 부상할 전망으로, 중남미 및 아프리카 지역대비 문화성 동질성이 높아 시장 접근이 용이